

현릉의 유식사상*

김성철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서론

I. 현릉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II. 목록류에 나타난 현릉 저작

III. 『현릉장』의 구성

IV. 현릉 유식사상의 특징

1. 11식론

2. 11식과 4식의 포함관계

3. 9종 혼습설

4. 심분설

5. 유식의 의미

6. 8식설

V. 범상종이라는 규정에 대하여

결론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NRF-2007-361-AM0046).

요약문

본고는 일본 문헌에서만 전하는 분황사 출신 현륵의 학계와 사상에 대한 선행연구를 재검토하고, 주로 교넨이 인용한 현륵의 일문에 근거하여 현륵 유식사상의 특징과 학계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하는 논문이다.

먼저 11식론과 관련하여, 현륵은 진제역 『무상론』에서 유래하는 수자식 개념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른 섭론학파의 견해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11식과 4식의 포함관계에 대해서도 현장역 『변중변론』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진제역 『중변분별론』에 의거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교넨에 따르면 현륵의 견해는 섭론학파 도기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다. 9종훈습설 및 유식의 의미와 관련하여, 현륵은 『성유식론』의 설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르지 않고 있다. 심분설과 관련해서는 일관성 있는 설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8식설에 관해서는 섭론학파의 설과 가까운 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문의 내용에 근거해볼 때, 현륵이 섭론학파와 매우 밀접

한 관계를 가졌다고 추측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에 비해 『현륵장』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일본의 전승은 현륵을 현장 문하중에서 기(基)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거나 법상종에 속한 인물이라고 전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특히 법상종이라는 규정에 대해 그것이 후대 일본의 종파명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사실을 중시하고, 이 규정을 선대로 거슬러 올라가 현륵에게 적용하는 것을 무리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현 단계에서 현륵의 일문에 근거한 그의 학계에 대한 판단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일종의 작업가설적 결론을 내린다면, 현륵은 섭론학파 출신으로서 섭론학파의 입장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당시 새롭게 번역되고 세력을 확장해 가는 신역의 여러 학설도 적극적으로 섭렵한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현륵의 입장은 당시 신라 유식학계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현륵, 현륵장, 신라불교, 섭론학파, 법상종, 교넨, 구유식, 신유식

서론

7세기 후반에서 9세기 후반에 걸친 한일 불교 교류사와 관련해서는 몇몇 선구적인 연구자에 의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 나라시대 유식학과 화엄종 성립에 미친 신라 불교학의 영향이 주목되었다.¹⁾

선행 연구에 따르면,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현륜도 신라 분황사 출신으로서, 말년에는 일본에서 활동한 유식학자로 추측된다. 하지만 불행히도 한국 유식학 관련 문헌 가운데는 현륜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 현륜과 관련된 자료는 모두 일본에서 제작된 문헌뿐이다. 일본 문헌 중에서 현륜과 관련된 자료는 크게 사경 목록류, 현륜을 언급하는 문헌, 현륜의 저작을 직접 인용하는 문헌으로 나눌 수 있다.

1) 7-9세기 한일불교 교류사에 대해서는 최연식(2010) 참조.

현륜의 저작을 직접 인용하는 문헌에는 일본 화엄종 종조 교넨(凝然, 1240-1321)의 저작이 압도적이다. 이에 따라 교넨을 연구하는 일본 학자들에 의해 1940년대부터 현륜의 존재가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한일 양국에서 현륜을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은 2000년에 들어서야 발표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현륜 관련 선행 연구를 재검토한다. 다음으로 일본에서 찬술된 사경 목록류에 나타난 현륜의 저작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교넨이 인용한 현륜의 일문을 중심으로 현륜 유식사상의 특징과 학계에 대한 약간의 고찰을 더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고찰에 앞서 일종의 방법론적 전제로 밝혀 먼저 밝혀두고자 하는 점은, 현존하는 일문의 분량과 주제가 매우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본 논문은 어디까지나 현륜의 일문 자체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현륜에 대한 안넨이나 교넨의 평가는 현륜 저작 전체를 파악하고 내린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 보듯이 그들 평가의 관점 자체가 재고의 여지가 없지 않아, 그들의 평가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만 남아있는 현륜의 일문만으로 현륜 사상 전체를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수 없다. 더구나 그 일문이 교넨에 의해 취사선택된 일문이라는 사실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따라서 본고의 결론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이며, 현륜에 대한 더 정확한 평가는 새로운 문헌 자료의 발견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I. 현릉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몇몇 일본 학자²⁾에 의해 일본 문헌에 인용된 사실이 간간히 지적되어 오던 현릉은, 국내에서도 김상현(1988: 490)에 의해 “아마도 원효의 유훈을 계승했던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³⁾ 그러나 현릉을 본격적으로 고찰한 국내학자는 이만(1990, 2000, 2000a)이다.

이만은 1990년에 발표한 논문⁴⁾에서 주로 통일신라 이후에 쓰인 일본 전적에 인용된 신라 출신 승려들의 저서와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승랑(僧朗), 순본(順本), 현릉(玄隆), 의빈(義賓) 등 승려 20여 명과 일실본 60여 종을 언급한다. 이만은 췌주(善珠, 723-797)가 『법원의경』에서 현릉을 인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교넨의 『오교장통로기』를 통해 신라 분황사 출신임을 확인한다.

10년 후 이만(2000a)은 현릉의 생애와 사상을 중점적으로 조망하는 또 한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이 논문에서 이만은 법장(法藏, 643-712)과 췌주의 인용문을 통해 현릉의 연대와 학파를 추정하고, 주로 교넨이 인용한 문장에 근거하여 현릉의 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그는 법장의 『화엄경탐현기』(696~697년 작)에 나타난 유가행과 4선근위와 화엄중에서 주장하는 30심의 관계에 관한 이견과 그에 대한 교넨의 주석에 주목한다(이만 2000a: 3). 4선근위와 30심의

관계에 대해 법장은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한다. 그 중 첫째가 4선근위는 10회향위 다음에 별립한다는 견해다. 이만은 이 구절을 주석한 교넨에 의거하여 이 견해가 현릉의 주장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만(2000a: 4)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릉은 7세기 말엽에 활동한 것이 되어서 적어도 원효(617~686), 원측(613~696) 및 의상(625~702) 등과 같은 시기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이만은 현릉 학설이 신라 경덕왕 때(742~764) 활약했던 태현의 『성유식론학기』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현릉이 말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활동한 것으로 추측한다.

현릉의 학계와 관련하여, 이만(2000a: 6ff.)은 교넨에 의거해서, 현릉을 법상종에 속한 유식사상가로 판명한다. 그렇지만 구역 『섭대승론』도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基, 632~682) 계통과는 달리 신구 유식사상을 포괄적으로 섭렵한 학자로 추측한다. 게다가 교넨이 인용하는 현릉의 문장을 보면 설일체유부 학설 및 법상종 이외의 다른 대승 학설도 다수 있어 “일부의 진취적인 승려들과 같이 대소승 교학 전반에 걸쳐서 두루 관심을 가지고 이를 천착”(이만 2000a: 8)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이만(2000a: 21ff.)은 현릉이 신라에서는 유일하게 구유식과 신유식을 겸수하고, 대소승 교학 전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천착한 인물로 평가한다.

비슷한 시기 일본의 오카모토(2000)도 현릉의 일문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다. 오카모토(2000)는 교넨 등의 저술에 인용된 현릉의 일문을 모두 수집하고, 그에 기반하여 현릉의 학계를 조망한다. 현릉의 생몰 연대에 관해 오카모토(2000: 362f.)는 이시다와 김상현의 연구에 근거하여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전반으로 태현보다 약간 선행한 인물이라

2) 高峯(1942: 420); 八木(1962: 289, 378-379); 常盤(1973: 181). 岡本(2000: 360, n.1-3) 참조.

3) 김상현(1988: 490)은 『동역전등목록』에 보이는 ‘芬皇寺玄隆房本劫義一卷’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현릉이 원효의 『검의』를 필사하여 유통시켰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김상현은 현릉이 원효 학계라고 추측한다. 岡本(2000: 360, n.4) 참조.

4) 이 논문은 이만(2000: 77-100)에 재수록되어 있다.

고 추측한다.

『현룡장』의 제호에 관해 오카모토(2000: 363)는 『현룡사장』, 『원룡사장』, 『현룡사의장』, 『현룡장』 등 네 가지 용례를 들고 고문서에 따라 『현룡사장』이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현룡장』이 『대승의장』과 유사한 문헌임을 고려할 때 『현룡사의장』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교넨이 주로 사용하는 명칭인 『현룡장』을 사용한다.

이어서 오카모토는 『현룡장』의 일문을 검토한다. 그는 일문 검토에 앞서 『현룡장』을 언급하거나 인용하는 문헌을 모두 나열한다. 그것은 교넨의 『화엄탐현기통유초』, 『화엄공목장발오기』, 『화엄십중유식상감기』, 『화엄오교장통로기』, 켄주의 『법원의경』, 겐신(源信)의 『일승요결』, 안넨(安然, 841?~915?)의 『교시쟁론』, 지료⁵⁾의 『대승기신[론]동의략집』 등 5사 8문헌이다.⁶⁾ 오카모토는 여기서 발견된 일문을 부록에 모두 수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오카모토(2000: 366)는 현룡이 인용하고 있는 문헌을 거의 모두 나열하고, 현룡이 현장의 역경을 중시했다고 조심스레 추정한다. 오카모토는 이후 『현룡장』의 일문에 나타난 무성유정에 관한 전승, 대승과 일승의 관계, 11식론, 4선근설, 6신통을 차례로 검토한다.

5) 『대승기신론동의략집』을 건동의 저작이 아니라 智暉의 저작으로 본 것은 최연식(2001)에 따른 것이다.

6) 다만 여기에 더해 새롭게 추가해야 할 문헌이 있다. 교넨의 제자인 단에(湛耨, 1271-1347)의 『오교장찬석』이다. 『오교장찬석』(日佛全 12, 125下13-127상9)에는 4선근의에 관련하여 『화엄오교장통로기』(日佛全 10, 18上11-19下7)와 완전히 동일한 문장이 인용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현룡을 인용하거나 언급하고 있는 문헌은 6사 9문헌으로 확인된다. 현룡에 대한 문헌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김천학 교수께 큰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김천학 교수께 깊이 감사드린다.

먼저 무성유정에 관한 전승을 검토하면서 오카모토(2000: 366f.)는 영운(靈潤)과 신태(神泰) 그리고 신라 의영(義榮) 사이에 벌어진 무성유정의 존재를 둘러싼 논쟁을 전하는 겐신(源信)의 『일승요결』의 한 문장을 소개한다. 겐신에 따르면 영운은 구역의 입장에서 오성각별설을 비판하지만 신태가 이를 반박한다. 신태의 주장에 대해 신라의 의영이 다시 재반박한다. 겐신은 이를 전하면서 신라 현룡은 대체로 의영과 같은 의견이라고 언급한다.⁷⁾ 이를 근거로 오카모토는 현룡의 학계는 영운이나 의영과 가까운 입장이었다고 간주한다.⁸⁾

다음으로 오카모토(2000: 367f.)는 대승과 일승의 관계에 대한 현룡의 견해를 검토한다. 켄주의 『법원의경』에서 현룡이 대승과 일승을 동의어라고 간주하는 삼장의 견해를 인용하여 있다는 것이다.⁹⁾ 여기서 오카모토는 현룡이 인용하는 삼장을 현장이라고 추측한다. 그리고 현룡이 현장계 유식설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현룡도 이와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교판론에서는 지론종 남도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추정한다(岡本 2000: 369).

다음으로 오카모토(2000: 369ff.)는 11식설을 검토한다. 여기서 그는 현룡이 섭론학파의 여러 문헌을 참조했을 가능성, 현룡이 현장역만 고집한 흔적은 없는 점, 그리고 교넨의 지적대로 이 부분의 해석은 도기설에 가까운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만도 주목할 바 있는 유가행과의 4선근

7) 『일승요결』(대정74, 361b18-19): 海西玄隆師義章, 引此事, 大途同義榮師.

8) 吉村(2003: 231)는 靈潤을 섭론학파에 속하는 인물로 간주한다.

9) 『법원의경』(대정71, 176a21-24): 玄隆師云: 三藏解云, 大乘一[乘]語別義同. 言大乘者對小之名, 言一乘者對果之名. 今亦同之.

위와 화엄종 30심의 관계다. 4선근위와 30심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백미로서 가장 상세한 고찰을 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4선근위와 30심의 관계에 대해서는 10회향 이후 초지 이하에 4선근위를 별도로 설정하는 제1설과 10해·10행·10회향·10회향의 마지막 한 찰나를 각각 난·정·인·세제일법으로 하는 제2설이 있다. 결론만 제시하면 그는 “고래대덕’ 제2설, 상(常)법사, 술(述)법사설, 혜휴(慧休)설은 섭론학과, ‘고래대덕’ 제1설·변(變)법사설·현장설·원측설·의상설·염(染)법사는 현장계유식설의 해석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룡사장』에서 4선근의 위치를 둘러싼 두 설의 문제는 현장계 유식과와 섭론학과 학설의 차이에서 유래하고, 현룡은 현장계 설을 중심으로 하여 섭론학과설을 회통했다고 생각된다”(岡本 2000: 376)고 한다.

마지막으로 6신통과 관련한 고찰에서 오카모토(岡本 2000: 378f.)는 『현룡사장』이 혜원의 『대승의장』에 기반하여 그것을 참고로 지어진 저작이라고 한다.

결론에서 오카모토(岡本 2000: 379f.)는 ① 인용경론 ② 4선근위의 해석 ③ 현장설 인용 ④ 일본의 전승을 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현룡의 학계를 평가한다.

『현룡사장』이 과제로 한 항목의 많은 부분은 섭론학과나 지론학과 학설을 현장계 유식설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에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이때 문제가 된 것은 아마 자장 이래의 섭론학과 연구 이후, 신역 유식이 도입된 결과로 생긴 과제였을 것이다. 자장은 분황사에서 『섭대승론』을 강독했다고 하는데, 그 후, 분황사에서 유식 연구는 신역 유

식의 도입에 의해 학문 경향이 변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동향 가운데 찬술된 것이 분황사 현룡의 『현룡사장』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결국 현룡은 현장 문화의 범상종에 포함되는 인물로서 현장역과 그 사상에 기반하여 구역과 그 사상을 회통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카모토의 견해는 당시 신라 불교학계의 이해에 기반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현룡의 학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그의 세부적인 논거 하나하나를 살펴본다면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위에서 오카모토가 검토한 일문 자체를 살펴보아도, 무성유정에 관해서는 섭론학과 영운의 견해에 따르고 있고, 11식설에 관해서는 섭론학과 도기의 견해와 가까우며, 6신통에 관한 논의는 혜원의 『대승의장』과 유사성이 발견된다.

현장계 입장에서 섭론학과를 회통했다는 결론의 가장 중요한 논거인 4선근위와 30심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현룡은 4선근위를 10회향 이후에 별립하는 첫 번째 견해를 자신의 입장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의 근거로 『섭대승론』과 『대지도론』을 인용한다.¹⁰⁾ 여기서 인용하는 『섭대승론』 구절은 진제역 『섭대

10) 『오교장통로기』(대정72, 511a15-19): 一解: 十迴向以後, 初地已下, 別有四善根. 第一阿僧祇已後, 一小劫內, 欲入初地, 別修四善根. 故『攝論』云: “已過地前四位, 別有煇行.” 又『大智論』云: “柔順忍, 無生忍中間, 有頂法. 如聲聞法中, 煇忍中間, 有頂法也.”

승론석』 구절로서,¹¹⁾ 대응하는 현장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¹²⁾ 다시 말해 4선근위와 30심의 관계라는 주제 자체가 진제역 『섭대승론』에서 유래하며,¹³⁾ 현륜은 진제역 『섭대승론석』에 입각하여 제1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오카모토는 제2설의 기원을 변(擘)법사 및 현장과 원측에서 구하고 있지만, 기실 그것은 진제역 『섭대승론석』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성유식론』도 제1설을 지지하는 견해를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¹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현륜이 현장계 유식학설의 입장에서 있다는 주장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진제와 현장이 동일한 견해를 표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오카모토는 제2설을 주장하는 문장 직후에 제1설의 근거로 제시하는 『섭대승론』과 『대지도론』의 회통에 관한 문답에¹⁵⁾ 근거하여 현륜이 제1설의 입장에서 제2설을 회통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장계 유식 입장에서 섭론학파를 회통하려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이 문장은 제1설의 근거로 제시하는 『섭대승론』과 『대지도론』 사이에 보이는 외형적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시도로서 제1설 입장에서 제2설을 회통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 이어서 등장하는 두 번째 문

11) 진제역 『섭대승론석』(대정31, 207c29-a3): 福德智慧二行, 爲煖行體, 卽是三十七品. 此行是能燒惑薪, 道火前相故名煖. 此煖行, 已過地前四位.
 12) 현장역 『섭대승론석』(대정31, 352c17-20): “於下品無義忍中, 有明得三摩地”者, 謂於無義中起下品愛樂, 以其明名, 顯下品無義智三摩地名, 顯此無義智所依止定.
 13) 진제가 중국에서 성립한 특유의 교리학 특히 30심설을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殷山(2012: 49f.) 참조.
 14) 『오교장통로기』(대정72, 511b23-28): 唯識論云: 菩薩先於初無數劫, 善具福慧資糧, 順解脫分, 善圓滿已, 爲入見道, 住唯識性. 復修加行, 伏除二取, 謂煖·頂·忍·世第一法. 此四總名修決擇分, 順超眞實決擇分故.; 『성유식론』(대정31, 49a25-29).
 15) 『오교장통로기』(대정72, 511b15): 問: 若爾, 攝論及大智度論, 云何會通?

답도¹⁶⁾ 제1설과만 관련되어 있는 점은 이를 지지한다.

인용경론이나 현장역의 인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한정된 일문에 근거한 것임에도, 대체로 현장역 경론을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오카모토가 수집한 일문에 인용된 경론을 조사해 보면 더욱 확연하다.

<표1> 『현륜장』의 인용문헌(岡本 2000: 381-401)

경론명	인용수	경론명	인용수	경론명	인용수	경론명	인용수	경론명	인용수
유가론	30	성실론	4	구사론	3	세친섭론	1	비담장	1
대지도론	12	십지론	4	지지론	3	품류족론	1	영락경	1
열반경	7	중변론	4	순정리론	2	현양론	1
바사론	6	화엄경	3	잡심론	2	대품경	1	삼장론	2
진제섭론	5	대법론	3	대반야경	1	범망경	1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륜은 현장역 『유가사지론』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다. 그 외에는 신역과 구역, 대소승의 많은 경론을 고루 인용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런 인용 경향이 반드시 현륜을 현장 문하의 법상종 인물이라고 규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불충분하다. 다음에 보는 원효의 인용경향과 비교해 보자.

<표2> 원효의 인용문헌(오형근 1980: 84-85)

경론명	인용수	경론명	인용수	경론명	인용수	경론명	인용수	경론명	인용수
유가론	116	능가경	31	법화경	25	관경	15	중변론	9
섭대승론	53	열반경	27	인왕경	25	현양론	14	집량론	7
화엄경	44	기신론	26	본업경	21	불성론	13
지도론	38	사권경	26	보성론	21	대품경	13		
대법론	36	십권경	26	해심밀경	19	부인경	11		

16) 『오교장통로기』(대정72, 511b29-c1): 問: 若已過地前四位, 別有決擇分善者, 當爲初無數劫攝, 爲第二劫攝?

표에서 보듯, 원효 또한 『유가사지론』을 중점적으로 인용하고, 신구역을 막론하고 대승 경론을 두루 인용하고 있다. 현륜과 거의 동일한 인용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원효와 현륜의 이러한 인용 경향은 구역 유식에서 신역 유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줄 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현륜을 현장 문하의 유식학자로 평가하는 가장 분명한 근거는 일본의 전승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은 이만과 오카모토의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 두 학자의 연구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현륜의 일문이 발견된 것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 두 학자의 연구 범위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륜의 일문을 다시 읽는 과정에서, 특히 현륜의 학계와 관련하여 오카모토의 견해와는 다소 다른 해석 가능성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II. 목록류에 나타난 현륜 저작

먼저 일본에서 찬술된 목록류를 통해 현륜의 저작을 확인해 보자. 이시다(石田 1930)는 쇼소잉(正倉院) 사경일기나 사경목록 단간에 나타나는 기사를 수집하여 정리함으로써 8세기 말 나라시대 사경의 실태를 명확히 한 학자다.¹⁷⁾

17) 橋川(2002: 189). 橋川은 이 논문에서 나라시대 초기 법상교학에 미친 신라 학승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시다 목록(1930: 142)에는 본 논문의 고찰대상인 현륜의 저작도 보인다. 이시다(1930: 93f.)에 따르면 범성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조사의 저작으로 기의 『대승법원의립장』 12권, 원측의 『육십이견장』 1권 등과 함께 『현륜사장』 6권을 들고 있다. 부록으로 실려있는 <奈良朝現在一切經疏目錄>에는 현륜의 저작(No.2763)이 중국 찬술의 잡부로 분류되어 있다. 목록에 따르면 고문서에 실려있는 제명으로는 『현륜사장(玄隆師章)』 1권, 경목록에 있는 제명으로는 『현륜장(玄隆章)』으로서 전체 15권이다.¹⁸⁾ 이 목록에는 고문서에 기록된 연도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현륜사장』은 쇼보(勝寶) 2년(C.E. 750년)에 기록되었다. 늦어도 750년에는 현륜 저작이 일본에 유포되어 당시 학승들에게 읽혔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다.¹⁹⁾

후쿠시(福士 2008: (27)-(28))는 10세기 초까지의 목록류 중 『大日本古文書-正倉院編年文書』에 17명의 신라승려 중 현륜의 이름도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10세기 초까지 목록류 중 914년 엔초(圓超) 등이 편찬한 다섯 종과의 장소목록인 <오종록>(대정55, Nos.2177-2182), 특히 묘소(平祚)가 914년 찬술한 『법상종

18) 이와 함께 No.2764에는 『元隆師章』 6권이 勝寶 4년(C.E. 752년)으로 사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경목록의 제명으로는 『현륜장』으로 되어 있어 石田는 元隆을 玄隆의 오자로 간주한 듯하다. 고문서 목록의 권수가 1권과 6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륜장』을 일시에 전부 사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사경한 결과로 추측된다. 福士(2008: (28))은 이에 대해 “권수가 같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필사를 위해 빌릴 것을 요청할 때 부족한 권수만을 빌렸을 경우도 있고, 그것들의 기록 하나하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福士(2007)는 石田(1930) 등의 연구에 기초하여 신라승의 역경목록을 재정리하고 있다.

19) 石田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橋川(2002: 190) 또한 신라인의 유식관련 주석서의 저자로서, 원효·원측·도중·경홍·지인·행달·현인 외에도 제목 미상의 주석서의 저자로서 현륜을 소개하고 있다.

장소』(대정55, No.2180)에는 현룡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福士 2008: (28)-(29)). 현룡은 다시 법상종 승려 에이쵸(永超, 1014-95)가 1094년 찬술한 『동역전등목록』에 두 번 나타난다. 그 중 한 곳에는 『현룡사장』이 15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동역전등목록』(대정55, 1161c18)), 다른 한 곳에는 분황사 현룡방본으로 『겹의』 1권이 기록되어 있다(『동역전등목록』(대정55, 1161c20); 福士 2007: 21 + 2008: (31)). 그러나 1176년 조순(藏俊)이 찬술한 『주진법상종장소』(대정 55, No.2181)에는 현룡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현룡 저작은 8세기 말까지의 목록에 한번 등장할 뿐, 그 이후 11세기 말 『동역전등목록』에 이르기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한편 후쿠시(2010a: 40)는 가마쿠라 말기까지 일본 화엄종 문헌에 나타난 신라불교 문헌의 인용을 조사하면서, 모두 네 개의 일본문헌에서 현룡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후쿠시(2010a: 43)는 특히 교넨이 40대 후반에 지은 『화엄공목장발오기』 찬술시에 원효의 장소 및 둔륜과 현룡 등 신라 법상학에 주목하였다고 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현룡의 저작은 적어도 750년에는 일본에 사경되어 쯤주나 지코 등에 의해 인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현룡 저작은 1094년에 찬술된 『동역전등목록』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후 현룡을 재발견한 것은 일본 화엄종 승려 교넨이었다.

Ⅲ. 『현룡장』의 구성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 고문서나 사경목록 등에서 현룡의 저

서는 『현룡사장』 혹은 『현룡장』으로만 나타난다. 원제를 확인하기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현룡을 인용하는 쯤주나 지코 그리고 교넨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그들의 인용에서도 대체로 현룡의 저서는 정확한 제명으로는 인용되지 않는다. 다만 교넨의 인용문에 근거하여 『현룡장』의 일부 장제목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된다. 이를 통해 『현룡장』의 일부 구조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현룡장』의 장 제목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구절은 교넨이 저술한 『화엄공목장발오기』이다. 『화엄공목장』(대정45, 543a6ff)에서는 『섭대승론』에서 설하는 11식을 논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넨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현룡장』에 「십일식의」라는 장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화엄공목장발오기』에 따르면 「십일식의」는 첫째 명칭[名], 둘째 본질[體], 셋째 삼종훈습통색문(三種薰習通塞門), 넷째 사식섭문(四識攝門), 다섯째 건립문(建立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룡장』의 장 제목을 알 수 있는 또 한 구절은 교넨의 『화엄십중유식상감기』에 나타난다. 교넨은 여기에서 자신의 유식론을 전개하는데, 이에 앞서 선대 유식과 화엄 논사들과 저서를 먼저 제시하고 있다. 교넨은 선대 유식과 화엄 논사들과 저서는 크게 네 부류로 나눈다. 첫째는 섭론종과 법상종 논사와 저서, 둘째는 화엄종 논사와 저서, 셋째는 심식론을 주제로 한 저서와 논사, 넷째 일본에서 유식에 관한 저술을 저작한 논사와 그들의 저서다.²⁰⁾

이 중 먼저 섭론종 논사로는 당나라 복성사 도기(道基, ?-637)의

20) 『화엄십중유식상감기』(일장38, 521上6-522상4); 岡本(2013: 63ff.) 참조.

『섭론장』 14권을 들고 있다.²¹⁾ 법상종 논사로는 기의 『(대승)법원(의림장)』과 신라 분황사 현륜의 「유식장」, 그리고 원흥의 『사권장』 혹은 『원흥장』을 제시한다. 도기의 『섭론장』 제5가 「유식장」, 기의 『법원(의림장)』의 제3이 「유식의림」, 『현륜장』의 「유식장」, 원흥의 『사권장』 혹은 『원흥장』 제1이 「유식의」로서 유식의 의미와 다양한 측면들을 고찰하고 있다. 곧 네 논사의 저서 안에는 ‘유식’을 주제로 한 장이 있어, 교넨은 이에 근거해서 유식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현륜의 「유식장」은 모두 일곱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첫째 명칭[名], 둘째 본질[體], 셋째 견상차별문(見相差別門), 넷째 관행문(觀行門), 다섯째 섭제유식문(攝諸唯識門), 여섯째 공과차별문(因果差別門), 일곱째 관행위지문(觀行位地門)이다. 교넨은 이 중 셋째와 다섯째 그리고 여섯째 주제를 자신의 유식론의 20문 중 제10~12에 이용하고 있다.²²⁾ 이것은 기의 『대승법원의림장』 「유식의림」 중에서 여섯 주제를 제13~18문에 이용하는데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교넨의 유식사상 이해에 미친 현륜의 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륜장』에는 「사선근의장」이라는 제명의 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²³⁾ 『화엄경탐현기통유초』에는 10해, 10행, 10회향이라는 30심과 4선근위의 관계를 논하면서 『현륜장』 중 「사선근의장」의 내용을 매우 자세히 인용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는 「사선근의장」의 구조에

21) 『화엄십중유식상감기』(일장38, 521上6-10): 唐朝福城寺, 道基法師, 造攝論章一十四卷…此是攝論宗祖師, 隨宗建立義理也.

22) 岡本(2013: 65) 참조.

23) 『화엄경탐현기통유초』(일장1, 184下12ff.): 新羅芬皇寺, 玄隆法師, 制數卷章. 此在四善根義章中…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 이 장의 구조를 확인할 수는 없다.²⁴⁾

단편적인 제목의 취합이지만,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현륜장』은 「십일식[의]장」, 「유식[의]장」, 「사선근의장」 등 세 장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⁵⁾ 『현륜장』이 전체 15권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장들을 포함하여 유식에 관한 거의 모든 주제를 포괄한 방대한 저작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²⁶⁾

IV. 현륜 유식사상의 특징

이하에서는 11식론 및 11식과 4식의 대응관계, 9종 혼습론, 유식의 의미와 8식설 등을 중심으로 현륜 유식사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1식론

먼저 11식이란 『섭대승론』 「소지상분」 서두에서 의타기상을 정의하면서 등장하는 개념이다. 『섭대승론』은 의타기상을 ‘알아야식을 종자로 가지고 허망분별에 포함되는 식(vijñapti)²⁷⁾으로 정의한다. 이 ‘알

24) 이 부분에 근거한 30심과 4선근위에 대한 현륜의 견해에 대한 연구로는 이만(2000: 8-9) 참조.

25) 岡本(2000: 377, n.23)은 여기에 「육통의」라는 장도 포함시키고 있다. 「육통의」라는 명칭 자체는 『현륜사장』의 일문에는 없지만, 그 내용에 근거해 「육통의」라는 명칭을 상정하고 있다.

26) 岡本(2000: 363, 365, 379)는 『현륜장』이 정영사 혜원의 『대승의장』과 유사한 문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27) MS 58,3-5: de la gzhan gyi dbang gi mtshan nyid gang zhe na/ gang kun gzhi mam

라야식을 종자로 가지고 허망분별에 포함되는 식(vijñapti)'을 열한 가지로 재분류한 것이 11식이다. 11식의 명칭을 현릉에 따라 진제의 역어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곧 신식(身識, lus)·신자식(身者識, lus can)·수자식(受者識, za ba po'i nam par rig pa), 응수식(應受識, des nye bar spyad par bya ba'i nam par rig pa), 정수식(正受識, de la nye bar spyod pa'i nam pari rig pa), 세식(世識, dus kyi nam par rig pa), 수식(數識, grangs kyi nam par rig pa), 처식(處識, yul gi nam par rig pa), 언설식(言說識, tha snyad kyi nam par rig pa), 자타차별식(自他差別識, bdag dang gzhan gyi bye brag gi nam par rig pa), 선악양도생사식(善惡兩道生死識, bde 'gro dang ngan 'gro dang 'chi 'pho dang skye ba'i nam par rig pa)이다. 이 중 신식부터 언설식까지는 언설혼습종자로부터 발생하고 자타차별식은 아견혼습종자로부터 발생하며 선악양도생사식은 유분혼습종자로부터 발생한다.²⁸⁾

이 11식 중 전 5식은 18계로 설명되며, 나머지 식은 전 5식의 특수한 경우라고 한다.²⁹⁾ 세친도 신식을 안 등의 5계, 신자식을 염오식 혹은 염오의(*kliṣṭa-manas), 수자식을 의계, 응수식을 색 등의 6외계, 정수식을 6식계라고 설명하고 있다.³⁰⁾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수자식은 의계

par shes pa'i sa bon can yang dag pa ma yin pa kun rtog pas bsdus pa'i nam par rig pa'o//; 진제역 『섭대승론』(대정31, 118a23-24): 依他性相者, 本識爲種子, 虛妄分別, 所攝諸識差別.

28) MS 58,3-25; 진제역 『섭대승론』(대정31, 118a24-b1).

29) 진제역 『섭대승론』(대정31, 118b8-11): 由身識身者識受者識, 應知攝眼等六內界. 以應受識, 應知攝色等六外界. 以正受識, 應知攝眼等六識界. 由如此等識爲本其, 餘諸識是此識差別.; 현장역 『섭대승론본』(대정31, 138a16-19); MS 279ff.

30) 진제역 『섭대승론식』(대정31, 181c10-12): 身識, 謂眼等五界. 身者識, 謂染污識. 受者識, 謂意界. 應受識, 謂色等六外界. 正受識, 謂六識界.; 현장역 세친식 『섭대승론식』(대정31, 338a12-15): 身, 謂眼等五界. 身者, 謂染污意. 能受者, 謂意界. 彼所受識者,

다시 말해 한 찰나 전에 사라진 등무간연으로서 의근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유가행파가 창안한 의근, 다시 말해 의식과 동시에 존재하는 말나식과 더불어 두 종류의 의근을 이룬다.³¹⁾ 말나식은 11식에서는 신자식이라 불린다.

교넨은 이 11식 하나하나에 대해 진제역 『섭대승론식』 및 『무상론』³²⁾과 함께 『현릉장』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세번째 수자식에 대한 현릉의 설명이다.

현릉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지(受持)의 주체이므로 '수자'라고 말한다. '식'이란 [아]뢰야식이다. [아뢰야식은] 모든 법의 종자를 [수]지할 수 있으므로 '수자'라고 한다. 또 말한다. 생의 근본이므로 '수자'라고 한다. '자'라고 한 것은 주체[를 의미한다]. (이상)

또 말한다. '수자식'이란 본식(本識)을 본질로 한다. (이상)³³⁾

謂色等六外界. 彼能受識者, 謂六識界.

31) 진제역 『섭대승론』(대정31, 114a18): 意有二種; 현장역 『섭대승론본』(대정31, 133c5f.): 意有二種; MS 90; 김성철 외(2010: 79).

32) 대정신수대장경에는 『현식론』(대정31, No.1618)이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다. 이 문헌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일찍이 이 문헌을 연구한 宇井(1930: 201)는 진제의 번역이 아니라 제자가 직접 쓴 것 혹은 제자 등이 필기한 것 혹은 본문은 진제의 번역이고 주석은 제자들이 만든 것 등 여러 설을 제시하면서도 모두 불만족스럽다고 한다. 般山(2012: 19)도 순수한 번역이라면 주석이어서 할 문장이 본문으로 되어 있는 예로서 『현식론』을 들고 있다. 그는 이 문헌에 대해 진제의 번역으로 전해지지만, 순수한 번역으로 보기에는 내용과 구성 면에서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 문헌이 『섭대승론』의 해설서로서 성격을 가지는 한편, 진제가 『섭대승론』을 강의한 일련의 필기록이 존재했던 것을 가정해도 좋다면 그 일부일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33) 『화엄공목장발오기』(日佛全122, 380上12-15): 隆云. 受持之主故云受者. 識謂賴耶識. 能持一體法種故, 云受者也. 亦云. 生之本故, 云受者也. 者者主也. (已上) 又云 受者識 是本識爲性也. (已上)

위 인용문 중 첫 번째 문단은 명칭[名]을, 두 번째 문단은 본질[體]을 주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⁴⁾ 현륜은 수자식을 주석하면서 그것이 본식 곧 알라야식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현륜의 설명은 『섭대승론』 및 세친석의 설명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섭대승론』과 세친석은 수자식을 전통적인 의미의 의근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자식에 대한 현륜의 설명은 매우 특이한 것으로서 현륜 유식사상의 계보를 엿볼 수 있는 실마리를 던져 준다.³⁵⁾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설명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이는 교본이 직후에 인용하는 『무상론』 곧 『현식론』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수자식이다. 의계를 수자식라고 이름하니, 세 가지 의식이다. 첫째는 아리아식이라고 하니 이것은 미세한 의식이다. [아리아식은] 항상 과보를 받고 선악과 통하지 않으며 도덕적으로 중성이다. 둘째는 (둘째 뒤에 ‘아’자가 빠진 듯하다) 다나식이니 이것은 중간의 의식이다. 다만 범부의 몸이라는 과보를 받는다. 셋째는 항상 명료한 의식이니 이것은 거친 의식이다. [거친 의식은] 선과 악 그리고 중성이라는 세 가지 성격의 과보를 모두 받는다. [진]오식도 마찬가지다. 이 세 가지 의식이 과보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금은 흥폐에 근거하여 말하므로 [아]리아식을 일컬어 수자식이라고 한다.³⁶⁾

34) 『화엄공목장발오기』(日佛全122, 382上16-17): 其名體二門, 如前已引.

35) 岡本(2000: 370)는 11식을 다루고 있는 문헌으로 정영사 해원의 『대승의장』, 『섭대승론초』와 『섭론장』, 도기의 『섭론의장』 등을 든다. 그는 해원이 11식을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는데 비해 『섭대승론소』 등에서는 11식을 독립된 항목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현륜장』이 섭론학파의 여러 문헌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36) 『화엄공목장발오기』(日佛全122, 380上15-하3): 二受者識. 意界名受者識, 卽三種意識. 一謂阿梨耶識, 是細品意識, 恒受果報, 不通善惡, 但是無覆無記. 二(考二下恐脫

『현식론』은 논의 첫머리에서 3계가 다만 유식이라고 선언한 후, 3계에 두 가지 식이 있다고 한다. 곧 현식과 분별식이다. 이 중 현식은 본식을 의미하고 분별식은 의식을 가리킨다. 이어서 『현식론』은 현식과 분별식의 상호발생관계를 설명한 후, 두 가지 혼습을 논한다.³⁷⁾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현식과 분별식을 『섭대승론』의 11식으로 세분하여 설명한다. 11식은 다소 특이한 방식으로 현식과 분별식으로 분류된다. 곧 11식 중 두 번째 신자식과 세 번째 수자식이 분별식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9식이 모두 현식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다.³⁸⁾ 이 중 분별식으로 분류된 수자식에 대한 설명이 바로 위 인용문이다.³⁹⁾

위 인용문은 의계를 수자식이라고 이름하고 다시 세 가지 의식으로 세분하여 설명한다. 세 가지 의식이란 미세한 아리아식과 중간의 아다나식 그리고 거친 의식을 가리킨다. 이 세 가지 식은 차례대로 제8식, 제7식, 제6식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제7식을 아다나식이라고 간주하는 섭론학과 일부의 심식설과 일치한다.⁴⁰⁾

수자식에 대한 현륜의 이와 같은 이해는 『현륜장』 「십일식의장」 중

阿)陀那識, 是中品意識. 但受凡夫身果報. 三者謂常所明意識, 是羸品意識, 通受善惡無記三性果. 五識亦爾. 此三品意識, 通能受用果報. 但今據興廢爲言故, 呼梨耶識爲受者識.

37) 『현식론』(대정31, 878c4-27).

38) 『현식론』(대정31, 878c27-879a2).

39) 『현식론』(대정31, 879b2-9). 하지만 이어지는 설명에서는 분별식을 11식 중 첫 번째 인 신식과 신자식이라고 하거나(대정31, 879b11-12: 分別識有二種. 一有身識, 二身者識), [아]다나식과 의식이라고도 하는 등(대정31, 879b15-16: 若是分別識, 則是陀那, 及意識), 설명이 일관되지 않고 혼란스럽다. 이는 여러 상이한 입장의 해설과 가필이 혼재한 결과로 보인다.

40) 섭론학파에서 제7식을 아다나식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吉村(2003: 226ff.; 2012: 264) 참조.

세 번째인 삼중혼습통색문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서 현륜은 수자식은 6도의 이숙식이므로 따라서 유분혼습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왜 『섭대승론』에서는 유분혼습이 아니라 언설혼습으로부터 발생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한다.⁴¹⁾ 여전히 현륜은 수자식을 이숙식 곧 아뢰야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십일식장」 중 다섯 번째인 건립문에서도 동일한 이해방식이 나타난다. 건립문은 『섭대승론』에서 유식을 설하는 방식인 유량(唯量), 유이(唯二), 유종중(唯種種)을 11식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 중 유량을 설명하면서 현륜은 수자식, 신자식, 정수식을 차례로 능연에 해당하는 세 가지 식이라고 하고 있다.⁴²⁾ 이는 차례대로 알라야식, 말나식, 전6식에 해당한다. 수자식을 알라야식이라고 일관되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수자식에 대한 현륜의 이해는 『무상론』의 설명에 근거한 것으로, 다른 섭론학과 문헌의 기술과도 일치한다.⁴³⁾

2. 11식과 4식의 포함관계

다음으로 11식과 4식의 포함 관계에 대한 현륜의 견해를 살펴본다. 이 포함관계는 「십일식의장」의 네 번째 사식상섭문(四識相攝門)에서 설명된다. 4식이란 진제역 『중변분별론』의 역어로는 사진(似塵,

41) 『화엄공목장발오기』(日佛全122, 382下2-3): 門: 受者識, 是六道異熟識, 所言有分所生, 何故不說有分所生.

42) 『화엄공목장발오기』(日佛全122, 383下7-8): 受者識·身者識·正受識, 此三識, 是能緣識唯有三識, 實無外塵, 爲顯唯量.

43) 수자식을 본식이라고 정의하는 문구는 섭론학파에 속하는 다음 문헌에서 확인된다. 『섭대승론장』(대정85, 1017a12): 三名受者識, 謂是本識.

artha-pratibhāṣa), 사근(似根, sattva-pratibhāṣa), 사아(似我, ātma-pratibhāṣa), 사식(似識, vijñapti-pratibhāṣa) 등 네 가지 식을 가리킨다. 진제역 『중변분별론』에서 세친은 사진식을 색 등의 대상으로 현현하는 식, 사근식을 자타의 5근으로 현현하는 식, 사아식을 의식으로서 아견 및 무명 등과 상응하는 식, 사식식을 6식이라고 주석한다.⁴⁴⁾ 현륜이 11식과 4식의 상호포함관계를 논하는 이유는 진제역 『섭대승론석』에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이다.⁴⁵⁾ 그러나 이 구절은 현장역 세친석 『섭대승론석』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11식과 4식의 관계에 대해 현륜은 사진식을 응수식에, 사근식을 신식에, 사아식을 정수식의 일부에, 사식식을 역시 정수식의 일부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각각 진제역 『중변분별론』을 인용하여 설명한다.⁴⁶⁾ 현륜은 정수식을 전6식이라고 설명한 후,⁴⁷⁾ 사아식과 사식식을 정수식에 포함시키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해설한다. 정수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아를 계탁하는 의식이고, 둘째는 자아를 계탁하지 않는 의식이다. 이 두 의식 중 자아를 계탁하는

44) 『중변분별론』(대정31, b7-11): 塵根我及識 本識生似彼 但識有無彼 彼無故識無 似塵者, 謂本識顯現, 相似色等. 似根者, 謂識似五根, 於自他相續中顯現. 似我者, 謂意識與我見無明等相應故. 似識者, 謂六種識.; MAV 23-26: tatrārthapratibhāṣaṃ yad rūpadibhāvena pratibhāṣate/ sattvapratibhāṣaṃ yat pañcendriyatvena svaparasantānāyor[] ātmapratibhāṣaṃ kliṣṭaṃ manañ/ ātmanohādisamprayogāt/ vijñaptipratibhāṣaṃ ṣaḍ vijñānāni[]

45) 진제역 『섭대승론석』(대정31, 181c27-29): 虛妄分別, 若廣說有, 十一種識. 若略說, 有四種識: 一似塵識, 二似根識, 三似我識, 四似識識.

46) 『화엄공목장발오기』(日佛全122, 384上14-下3).

47) 『화엄공목장발오기』(日佛全122, 380下12-16): 隆云. 六識之身, 受用六塵故, 云正受也. ... (已上) 又云. 正受識者 六識爲性. (已上)

의식을 취해 사아식으로 삼고 자아를 계탁하지 않는 [의식]을 사식식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여섯 가지 식이라고 한다.⁴⁸⁾

현룡은 의식에 대해 자아를 계탁하는 의식과 자아를 계탁하지 않는 의식 두 가지로 세분한다. 그리고 전자를 사아식에 후자를 사식식에 배당함으로써, 양자를 정수식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사아식에 대한 『중변분별론』의 정의를 재검토해 볼 때, 사아식을 의식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진제역 『중변분별론』에서는 사아식을 ‘의식으로서 아견 및 무명 등과 상응하는 식’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현장역 『변중변론』은 사아식을 염오의로 규정하고 있으며⁴⁹⁾, 이는 산스크리트본과도 일치한다.⁵⁰⁾ 현룡은 진제역에만 의거해 사아식을 의식으로 이해하고, 사아식을 정수식의 일부 곧 의식의 일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교넨이 인용하는 진제역 『중변분별론』에 대한 원효의 주석이 사아식을 정확히 말나식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점과도 상반한다.⁵¹⁾ 교넨은 이 점을 도기의 견해와 함께 명확히 대비해 주고 있다. 현룡은 진제역 『중변분별론』의 번역용어에 근거하여 사아식을 제6의식이라고 간주하고, 섭론학파에 속하는 도기 또한 그와 유사한 견해를 보여 주지만, 원효는 그것을 제7식인 말나식이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

48) 『화엄공목장발오기』(日佛全122, 384下3-5): 解云. 正受識有二種, 一計我意(<=情)識, 二不計我意識. 於此二意識中, 取計我意識, 爲似我識. 不計我者, 立爲似識識, 故云六種識.

49) 『변중변론』(대정31, 464c12-13): 變似我者, 謂染未那, 與我癡等恒相應故.

50) MAV 18,27-19-1: atma-pratibhāsam kliṣṭam manaḥ / ātmamohādi-samprayogāt /

51) 『화엄공목장발오기』(日佛全122, 385下10-11): 言意識與我見無明等相應故者. 謂末那識於一切時我見相應.

다.⁵²⁾

그렇다면 왜 현룡은 현장역 『변중변론』을 참조하지 않았을까? 우선 『현룡장』을 저작할 당시에 신라나 일본에 현장역 『변중변론』이 번역되어 유통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신라에는 이미 현장역 『변중변론』이 번역되어 유통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효가 이미 현장역 『변중변론』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시다 목록(石田 1930: 63)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이미 진키(神龜) 5년(729년), 덴표(天平) 3년(731년), 덴표 5년(733년)에 각각 『辯中論』, 『辨中邊論』, 『辨中辨論』을 사경한 기록이 남아있다. 진제역 『중변분별론』 사경 기록 연도는 덴표 9년(736년)이므로, 현룡이 말년에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저작 작업을 했다고 해도, 그는 진제역 『중변분별론』 뿐 아니라 현장역 『변중변론』을 참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현룡은 어떤 이유로든 고의로 현장역 『변중변론』을 무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현룡은 11식과 4식의 관계에 대해 섭론학파에 가까운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11식과 4식의 관계에 대해 현룡에게는 원효의 영향이 보이지 않으며,⁵³⁾ 신역인 현장역을 참고한 흔적도 보여주지 않는다. 게다가 현룡이 의도적으로 현장역을 무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52) 『화엄공목장발오기』(日佛全122, 386下8-11): 其中似我舊譯之文. 惣云意識 言濫第六. 是故玄隆, 判此意識, 爲第六識. 道基法師意, 似指第六識. 然丘龍大師, 判爲末那. 又新譯中邊, 分明既云, 染末那也.

53) 이 점에서 김상현(1988: 490)이 현룡이 원효의 율법을 계승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9종 혼습설

다음으로 현륜의 9종 혼습설을 살펴보자. 9종 혼습설이란 진제역 『섭대승론석』에서 『섭대승론』의 3종 혼습을 8가지로 세분한 것을⁵⁴⁾, 현륜이 문혼습을 추가해 9종으로 분류한 것이다.⁵⁵⁾ 진제역 『섭대승론석』에서 분류한 8종 혼습설은 대응하는 현장역 세친석 『섭대승론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도 진제 혹은 제자가 가필한 부분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륜은 이 9종 혼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현륜이 주석하여 말한다. 명언혼습이라고 이름하여 말한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언설명언이고 둘째는 현경[명언]이다.⁵⁶⁾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저 [『현륜장』]에는 두 가지 명언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식혼습이라고 말한 것은 의식이 본식을 인식대상으로 하여 혼습된 종자가 나중에 다시 본식을 낳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혼습이라고 한다. 문혼습이라고 한 것은 가르침으로부터 문혼습 등의 종자를 낳는 것이다.

색식혼습이라고 한 것은 감관과 대상 등의 법을 인식대상으로 하여 자아와 자아에 속한 것이라고 계탁하는 것에 의해 혼습된 종자다. 이 색법 등

54) 진제역 『섭대승론석』(대정31, 187c25-28): 熏習有三種: 一名言熏習·識熏習, 二色識熏習·識識熏習·見識熏習, 三煩惱熏習·業熏習·果報熏習.
 55) 『화엄공목장발오기』(日佛全122, 460下17-461上4): 玄隆章云: 言九種熏習者, 名言熏習中, 開出三種, 謂一名言, 二識熏習, 三聞熏習. 我見熏習中, 開出三種, 謂一色識熏習, 二識識熏習, 三見識熏習. 有分熏習中, 開出三種, 謂一煩惱熏習, 二業熏習, 三果報熏習.
 56) 명언혼습을 언설명언과 현경명언으로 나누는 것은 『성유식론』(대정31, 43b2ff.)에 나타난다.

의 법은 마음의 영상이므로 [색]식이라고 한다. 식식혼습이라고 한 것은 식을 계탁하여 자아로 간주하는 것이니, 말나식과 같다. 견식혼습이란 아견을 계탁하는 혼습이다.

번뇌혼습이란 번뇌의 종자다. 업혼습이란 3업의 종자다. 과보혼습이란 6도의 과보 종자다. 이 [유분혼습]은 명언[혼습]의 일부다. 그러나 이미 [번뇌에] 짓은 단계에서는 이름을 바꾸어 유라고 하고, 유분혼습에 포함된다.⁵⁷⁾

진제역 『섭대승론석』은 『섭대승론』에서 설하는 3종 혼습설을 여덟가지로 세분하지만, 명칭만 나열할 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진제역 『섭대승론석』의 8종 혼습설 혹은 여기에 문혼습을 추가한 9종 혼습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자가 아는 한, 현륜의 것이 유일하다. 『성유식론』 또한 『섭대승론』의 3종 혼습설을 세분하여 여섯 가지로 분류하지만,⁵⁸⁾ 진제역 『섭대승론석』 및 그에 기반한 현륜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분류 방식을 보이고 있다. 현륜은 『성유식론』이 명언습기를 언설명언과 현경명언으로 분류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57) 『화엄공목장발오기』(日佛全122, 461上8-17): 玄隆釋云. 言名言熏習者, 以有二種. 一言說名言, 二顯境. 如上說 (彼章廣明二種名言). 言識熏習者, 意識緣本識, 所熏種子, 後時還生本識, 故云識熏習. 言聞熏習者, 從教而生聞熏習等種子也. 言色熏習者, 緣根塵等法, 計為我我所所熏種子也. 此色法等法心影, 故云識也, 言識識熏習者, 計識為我, 如末那識. 言見識熏習者, 能計我見熏習也. 言煩惱熏習者, 煩惱種子也. 言業熏習者, 三業種子也. 言果報熏習者, 六道果報種子也. 此是名言一分. 然已潤位中, 轉名為有, 攝為有分熏習也.
 58) 『성유식론』(대정31, 43b2ff.)은 명언습기 중 명언을 표의명언과 현경명언으로, 아집습기 중 아집을 구생아집과 분별아집으로, 유지습기 중 유지를 유루선과 불선으로 구분하는 등 모두 6가지 습기로 분류한다. 이것은 진제역 『섭대승론석』과는 다른 분류 방식이다.

적인 분류의 틀이라는 측면에서는 『성유식론』의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룡의 태도는 그의 독특한 심분설에서도 보인다.

4. 심분설

현룡의 심분설에 대해서는 극히 단편적인 자료만 남아 있어 전모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게다가 현존하는 자료 중에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술도 있다. 하지만 매우 독특한 심분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교넨은 현룡의 심분설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열 번째 견분과 상분의 차이는 『현룡장』으로부터 나왔다. [『현룡장』에서 설한다.] 모든 법을 총괄하여 세 가지를 넘기지 않는다. 첫째는 견분이고, 둘째는 상분이며, 셋째는 견분도 상분도 아닌 것이니 곧 진여다. 견분과 상분은 각각 8식에 통하고 진여는 통틀어서 8식의 본질이다. 8식에는 각각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자세한 것은 저 [『현룡장』]과 같다.⁵⁹⁾

교넨에 따르면 현룡은 견분과 상분 그리고 진여라는 독특한 식의 3분설을 주장한다. 이러한 식의 3분설은 교넨이 인용하는 현룡의 견해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위 교넨의 인용과는 다소 다른 설을 전하는 문헌도 있어서 현룡 심분설의 실체는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현룡의 심분설에 대해 교넨의 전언보다 이른 시기의 문헌으

59) 『화엄십중유식상감기』(일장38, 525하9-12): 第十見相差別, 出玄隆章. 總括諸法, 不過三種. 一者見分, 二者相分, 三非見非相, 卽是真如. 見相二分, 各通八識, 眞如總是, 八識之性. 八識各有三種相. 廣如彼章.

로 지교의 『대승기신론동이략집』이 있다.

묻는다. 제8식에는 4분이 있는데 어떤 심분이 혼습의 대상인가?

답한다. 현룡스님이 말하길 자증분을 바로 혼습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다. 이것이 식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등등. (운운)⁶⁰⁾

어떤 사람이 4분 모두가 능熏이라고 한 것은 심분이 모두 각각 자신의 종자를 혼습하기 때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4분에는 각각 자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4분의 자체라는 측면으로써 혼습의 주체로 삼는다. 4분의 작용[으로써 혼습의 주체로 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체분과 자증[분]은 그 의미가 조금 다를 [뿐]이다. 등등 (현룡스님이 이와 같은 설을 주장한다.)⁶¹⁾

지교는 혼습의 주체와 혼습의 대상을 다루는 맥락에서 4분설을 전제로 위의 논의를 진행한다. 4분을 전제한 후 그 중 어떤 심분이 혼습의 대상과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인 것이다. 여기서는 현룡이 심분설에 진여를 포함시키지 않는 점, 적어도 제3의 심분으로 자체분 혹은 자증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현룡의 활동시기와 보다 가까운 지교의 언급을 중시한다면, 현룡의 심

60) 『대승기신론동이략집』(만속45, 265b19-21): 問: 第八識有四分, 何分正爲所熏耶. 答: 玄隆師云, 以自證分, 正爲所熏, 是識體故等(云云)

61) 『대승기신론동이략집』(만속45, 265c11-14): 有云: 四分皆能熏者, 是可非心分皆各熏自種子故. 故今四分, 各有自體義. 以其四分自體義, 以爲能熏. 非四分之用故. 自體分與自證其義稍異等(玄隆師等作如是說矣).

분설은 3분설 혹은 4분설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⁶²⁾

5. 유식의 의미

교넨은 이어서 모든 것이 유식이라는 의미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는 현룡의 주장을 인용한다. 첫째는 외계의 대상을 모두 자신의 마음뿐이라고 돌리는 것, 둘째는 상분을 건분으로 돌려 유식이라고 하는 것, 셋째는 모든 것은 알라야식의 결과이므로 통틀어서 유식이라는 것, 넷째는 모든 중생이 8식을 갖추고 있어서 모든 법이 자신의 8식으로 돌아간다는 것, 다섯째는 모든 법의 진여의 이치가 모든 법의 본질로서 식과 분리되지 않으므로 식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다.⁶³⁾

교넨이 설명하는 이러한 유식의 의미는 『성유식론』에서 유식의 숨겨진 의미를 설명하는 문장을 떠올리게 한다. 『성유식론』에서도 모든 것이 유식이라는 의미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⁶⁴⁾ 『성유식론술기』⁶⁵⁾를 참고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는 모든 중생에게 식 그 자체라는 의미에서 8식이 있다는 것, 둘째는 식과 결합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심소법, 셋째 앞의 두 가지의 변이로서 건분과 상분, 넷째 앞 세

62) 岡本(2013: 68, n.23)는 위 인용문을 언급하면서 문맥으로 판단하면 현룡이 4분설을 주장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63) 『화엄십중유식상감기』(일장38, 525下13-526上3): 第十一攝諸唯識, 出玄隆章. 攝諸法歸心, 略有五門. 一攝外門, 攝外諸法歸自心故. 二攝相門, 攝相歸見唯是識故. 三攝果門, 一切諸法, 本識之果, 攝果歸識, 總名唯識. 四攝類門, 一切衆生, 各具八識, 諸法各歸, 自身八識. ... 五通性門, 法眞如理, 諸識之性, 不離識心, 無不皆識.

64) 『성유식론』(대정31, 39c20-24): 故唯識言, 有深意趣. 識言總顯, 一切有情, 各有八識. 六位心所. 所變相見. 分位差別, 及彼空理所顯眞如. 識自相故, 識相應故, 二所變故, 三分位故, 四實性故. 如是諸法, 皆不離識, 總立識名.

65) 『성유식론술기』(대정43, 495b5-15).

가지의 양태로서 색법과 심불상응행법, 다섯째 앞 네 가지의 본질로서 진여가 모두 식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식의 의미라는 것이다.

이상 두 논의는 유식의 의미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설명 방식과 내용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룡은 『성유식론』의 논의 형식을 빌려와 자신의 방식으로 바꾸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6. 8식설

마지막으로 지적할 점은 현룡이 8식설을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교넨의 『화엄십중유식상감기』 중 열 번째 건분과 상분의 차이를 설명하는 문장과, 열한 번째 유식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장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⁶⁶⁾ 그러나 현룡이 8식설을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곧 현장 계통의 8식설과 동일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이 점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룡이 11식 중 수자식을 본식이라고 하고, 그것과 매우 유사한 설명이 『무상론』에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무상론』의 심식설은 아다나식을 제7식, 아리야식을 제8식으로 하는 8식설에 가깝다. 이러한 8식설은 섭론학과 일부에서 주장하는 8식설과 매우 유사하다(吉村 2003: 231). 현룡 또한 섭론학과 일부에서 주장하는 8식설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룡의 8식설의 전모를 알려줄 문장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어디까지

66) 각주 59)과 63) 참조.

나 추측에 머물 뿐이다.

V. 범상종이라는 규정에 대하여

덧붙여서 언급해야 할 점은 교넨이 현룡의 학과소속성을 규정할 때 사용한 ‘범상종’이라는 용어에 관해서는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오키모토가 현룡의 학계를 규정할 때 제시한 가장 유력한 논거라는 점에서도 제검토의 여지가 있다.

일본에서 범상종이라는 용어의 성립에 관해 제검토한 요시즈(1997)에 따르면, 범상종이라는 용어의 시작은 중국에서 범장이 유식 입장을 ‘범상’이라고 칭한 것에 유래하고, 일본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 8세기 말 무렵부터 ‘범상종’이라는 호칭이 정착했다. 현룡의 저작이 사경되기 직전인 747년의 사경 목록에는 범상종이라는 용어는 나타나지 않고 유식중(唯識衆) 혹은 섭론중(攝論衆)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요시즈 1997: 468). 유식중과 섭론중이 과연 동일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룡 자신이 범상종 소속이라고 자각하고 있었거나 당시 학승이 현룡을 범상종 소속이라고 간주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비록 매우 한정된 분량의 일문이긴 하지만,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룡은 범상종 견해와는 다른 입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범상종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종파명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요시무라(吉村 2012: 289, n.30)는 이 점에서 “범상종’이라는 중국 유식을 역사적으로 검증하는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은 신라 유식학계의 흐름을 설명할 때도 적용할 수 있

지 않을까.⁶⁷⁾

결론

이상으로 현룡의 학계와 사상에 대한 선행연구를 제검토하고, 주로 교넨이 인용한 현룡의 일문에 근거하여 현룡 유식사상의 특징과 학계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현룡의 학계에 대해 이만은 현룡이 신라에서는 유일하게 구유식과 신유식을 겸수하고, 대소승 교학 전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천착한 인물로 평가한다. 한편 오키모토는 현룡의 일문을 모두 수집, 검토하고 나아가 일본의 전승에 근거해, 현룡을 현장계 유식설에 입각하여 섭론학과나 지론학과 학설을 포괄하려 한 인물로 평가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현룡의 일문을 중심으로 그의 학계와 사상적 특징에 관해 고찰하고자 했다.

먼저 11식론과 관련하여, 현룡은 진제역 『무상론』에서 유래하는 수자식 개념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른 섭론학파의 견해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11식과 4식의 포함관계에 대해서도 현장역 『변중변론』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진제역 『중변분별론』에 의거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교넨에 따르면 현룡의 견해는 섭론학과 도기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다. 9종훈습설 및 유식의 의미과 관련해서는 『성유식론』의 설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르

67) 중국에서 범상종이라는 명칭에 대한 제검토는 吉村(2004, 2012) 참조.

지 않고 있다. 심분설과 관련해서는 일관성 있는 설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8식설에 관해서는 섭론학파의 설과 가까운 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문의 내용에 근거해볼 때, 현륜이 섭론학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추측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극소수만 현존하는 일문, 그것도 교넨이 취사선택하여 인용하고 있는 일문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현륜 사상 전체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에 비해 『현륜장』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일본의 전승은 현륜을 현장 문하 중에서 기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거나 법상종에 속한 인물이라고 전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특히 법상종이라는 규정에 대해 그것이 후대 일본의 종파명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사실을 중시하고, 이 규정을 선대로 거슬러 올라가 현륜에게 적용하는 것을 무리가 아닐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현 단계에서 현륜의 일문에 근거한 그의 학계에 대한 판단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일종의 작업가설 결론을 내린다면, 현륜은 섭론학파 출신으로서 섭론학파의 입장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당시 새롭게 번역되고 세력을 확장해 가는 신역의 여러 학설도 적극적으로 섭렵한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현륜의 입장은 당시 신라 유식 학계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약호와 참고문헌

- MAV *Madhyāntavibhāgaśāstra*, by Gadjin M. Nagao, Tokyo: Suzuki Research Foundation, 1964.
- MS 長尾 雅人, 『攝大乘論 - 和譯と註解』上, 京都: 講談社, 1982.
- 『성유식론』 唐 玄奘譯, 大正藏 31, No.1585.
- 『섭대승론』 陳 眞諦譯, 大正藏 31, No.1593.
- 『섭대승론본』 唐 玄奘譯, 大正藏 31, No.1594.
- 『섭대승론석』 陳 眞諦譯, 大正藏 31, No.1595.
- 『섭대승론석』 唐 玄奘譯, 大正藏 31, No.1597.
- 『중변분별론』 陳 眞諦譯, 大正藏 31, No.1599.
- 『변중변론』 唐 玄奘譯, 大正藏 31, No.1600.
- 『현식론』 陳 眞諦譯, 大正藏 31, No.1618.
- 『성유식론술기』 唐 窺基撰, 大正藏 43, No.1830.
- 『법상종장소』 日本 平祚錄, 大正藏 55, No.2180.
- 『주진법상종장소』 日本 藏俊撰, 大正藏 55, No.2181.
- 『동역전등목록』 日本 永超集, 大正藏 55, No.2183.
- 『일승요결』 日本 源信纂, 大正藏 74, No.2370.
- 『교시쟁론』 日本 安然纂, 大正藏 75, No.2395B.
- 『섭대승론장』 大正藏 85, No.2807.
- 『대승기신론동이략집』 唐 見登集, 卍新纂大日本續藏經 45, No.759.
- 『화엄경담현기통유초』 凝然 述, 日本大藏經 1
- 『화엄십중유식상감기』 凝然 述, 日本大藏經 38

- 『오교장통로기』 凝然 纂, 大日本佛教全書 10
- 『오교장찬석』 湛睿 纂, 大日本佛教全書 12
- 『화엄공목장발오기』 凝然 術, 大日本佛教全書 122

- 김상현 1988 「新羅 誓幢和上碑의 再檢討」, 『黃壽永博士古稀紀念美術史學論叢』, 서울: 동국대출판부.
- 김성철/박창환/최은영/차상엽 2010 『무성석 섭대승론 소지의분 역주』, 서울: 씨아이알.
- 김천학 2012 「金澤文庫所藏圓弘の『妙法蓮華經論子注』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60-2, 154-161.
- 오형근 1980 「원효사상에 대한 유식학적 연구」, 『불교학보』 17, 77-111.
- 이만 1990 「法相關係 論疏와 新羅人의 撰述書」, 『불교학보』 27,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67-184(=이만 2000: 77-100).
- ——— 2000 『한국유식사상사』, 서울: 장경각.
- ——— 2000a 「신라 玄隆의 敎學思想」, 『한국불교학』 26, 서울: 한국불교학회, 1-20.
- 최연식 2001 「『大乘起信論同異略集』의 著者について」, 『駒澤短期大學佛敎論集』 7.
- ——— 2003 「義寂의 思想傾向과 海東法相宗에서의 위상」, 『불교학연구』 6, 33-69.
- ——— 2010 「7-9세기 신라와 일본의 불교교류에 대한 연구동향 검토」, 『불교학리뷰』 8, 9-41.
- 石田 茂作(ISHIDA Mosaku) 1930 『寫經よりみたる奈良朝佛敎の研究』, 東

- 京: 東洋文庫.
- 宇井 伯壽(UI Hakuju) 1930 『印度哲學研究第六』, 東京: 甲子社書房.
- 岡本 一平(OKAMOTO Ippei) 2000 「新羅唯識派の芬皇寺玄隆『玄隆師章』の逸文研究」, 『韓國佛敎學SEMINAR』 8, 東京: 韓國留學生印度學佛敎學研究會.
- ——— 2013 「示觀房凝然の華嚴思想における‘唯識’の考察」, 『동아시아불교문화』 13, 부산: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57-106.
- 橋川 智昭(KITSUKAWA Tomoaki) 2002 「日本飛鳥・奈良時代における法相宗の特質について - 新羅唯識學との關わりを探って」, 『불교학연구』 5, 서울: 불교학연구회, 181-218.
- 高峯 了州(TAKAMINE Ryoshu) 1942 『華嚴思想史』, 京都: 百華苑.
- 常磐 大定(TOKIWA Daijo) 1973 『佛性の研究』, 東京: 丙午出版社.
- 福士 慈稔(FUKUSHI Jinin) 2007 「『大日本古文書-正倉院編年文書』にみられる新羅佛敎の二・三の問題」, 『身延山大學東洋文化研究所所報』 11, 1-26.
- ——— 2007a 「十二世紀末までの日本各宗に於ける朝鮮佛敎の影響について」, 『身延山大學佛敎學部紀要』 8, (1)-(21).
- ——— 2008 「目錄類からみる日本に於ける朝鮮佛敎の影響とその問題點」, 『印度學佛敎學研究』 56-2, (27)-(33).
- ——— 2008a 「日本法相宗諸目錄及び章疏にみられる新羅佛敎認識」, 『宗教研究』 81(4), (1144)-(1146).
- ——— 2010 「十二世紀末までの日本天台宗の新羅佛敎認識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58-2, (30)-(37).
- ——— 2010a 「鎌倉末までの日本華嚴宗の朝鮮佛敎認

識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59-1, (39)-(46).

- ・ 般山 徹(FUNAYAMA Toru) 2012 「眞諦の活動と著作の基本的特徴」, 『眞諦三藏研究論集』, 1-86,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 ・ 吉津 宜英(YOSHIZU Yoshihide) 1997 「法相宗」という宗名の再検討」, 『渡辺隆生教授還暦記念論集-佛教思想文化史論』, 京都: 永田文昌堂, 465-484.
- ・ 吉村 誠(YOSHIMURA Makoto) 2003 「攝論學派の心識説について」, 『駒澤大學佛教學部論集』 34, 223-242.
- ・ ————— 2004 「中國唯識諸學派の呼稱について」, 『東アジア佛教研究』 2.
- ・ ————— 2012 「中國唯識思想史の展開」, 『シリーズ大乘佛教 7 唯識と瑜伽行』, 東京: 春秋社, 255-290.

Hyeonryung's (玄隆) Consciousness-only Thought

KIM, Seong-cheol

HK Professor
Center for Buddhist Studies, Geumgang University

In this paper, I first summarize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on Hyeonryung, and examine his works that appear in the citations of Gyonen 凝然 (1240-1321). Thereafter, I re-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his Yogācāra thought and his academic lineage.

On the eleven consciousnesses, Hyeonryung's understanding of the reception consciousness 受者識 is based on the explanations found in the *Wuxiang lun* 無相論, and coincides with descriptions that appear in other literature of the Shelun 攝論 doctrinal lineage.

Regarding the relation between the Eleven Consciousnesses and Four Consciousnesses, Hyeonryung shows a position which is very close to that of the Shelun School 攝論學派. At least regarding such relation, Hyeonryung does not show any influence exerted by Wonhyo 元曉 (617-686), nor also any trace of his having referred to the new translation by Xuanzang 玄奘 (602-664).

As for the Nine Kinds of Permeations Theory and the meaning

of Conscious-only theory, Hyeonryung seems to be aware of the of the theories expounded in the *Cheng weishi lun* 成唯識論, but did not adopt them for his own.

On the question of Hyeonryung's school affiliation, Annen 安然 (841?-915?) and Gyonen state that Hyeonryung, among the disciples that studied under Xuanzang, showed a different position from that of Ji 基 (623-682) and belonged to the Dharma-character school 法相宗. As this paper describes, however, Hyeonryung seems to be a scholar-monk closer to the Shelun School rather than belonging to the Dharma-character school. Considering this connection, it seems that Gyonen's stipulation that Hyeonryung belongs to the Dharma-character school must be re-examined with regards to Hyeonryung's academic lineage.

Keywords

Hyeonryung 玄隆, treatises of Hyeonryung 玄隆章, Silla Buddhism, Shelun School 攝論學派, Dharma-character school 法相宗, Gyonen 凝然

✉ 투고일자 2014.5.1 | 심사일자 2014.5.24 | 게재확정일자 2014.6.8

『금광명경』의 여신들과 한국불교에서의 그 신앙문화*

조승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I. 서언

II. 불교의 여신 수용과 『금광명경』

1. 불교경전의 여신수용

2. 『금광명경』의 여신들

III. 신라·고려시대 불교의 여신 신앙

1. 『삼국유사』의 변재천 설화

2. 고려시대 금광명경도량과 공덕천도량

IV. 조선시대 불교 의례 속의 여신

1. 수록재와 삼장(三藏) 신앙과 지신(地神)

2. 104위 신중도 속의 『금광명경』 여신들

V. 결어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2024121).